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룯기

생명의 양식을 준비합시다

(룯기 1:6-14)

Shall we prepare for the bread of life?

(Ruth 1:6-14)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Elimelech, Naomi and their two sons, Mahlon and Kilion, left Bethlehem, because there was no food. The word, 'Bethlehem,' means cake shop or bakery. However, the provisions ran out.

1. 영적 양식의 부재

1. The absence of spiritual bread

한국교회는 70-80년대 사이 약 20년 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서서히 성장세가 둔화되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이 갈해 있습니다.

Korean churches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from the 1970s and 1980s in Christian history to such an extent that we cannot trace it. However, the strength of this growth started to weaken slowly from 1990, and finally during the 2000's the growth has been negative.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is no the bread of life in Korean Churches. Even now, Koreans are spiritually hungry and their throats are dry.

한국교회에는 사랑 대신 다툼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쁨 대신 피곤함과 상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부흥과 은혜의 간증만 있을 뿐입니다.

Korean churches have been filled with quarreling and jealousy instead of love, as well as with fatigue and injury instead of joy. Not only that, but they have dwelled on the testimony of revival and grace which has existed for a long time, rather than grace for today.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는 신행일치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고 말씀하십니다.

What is the bread of life? It is God's presence. It is the occurrence of His presence that shows us that God is with us here. God's presence appears in our life of faith which moves to action. Through the appearance of our love and blessing to one another, God's presence will be revealed. Jesus said,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5).

2. 나오미가 들은 소문

2. The rumor that Naomi heard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후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떠난 베들레헴,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 양식이 생겼 것입니다.

When Naomi heard that God had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and had given them bread, she decided to return to Bethlehem without hesitation. They had left Bethlehem because there was no food. But now, in Bethlehem, there was food.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소문은 전도의 시작이며 부흥의 전주곡입니다.

When churches demonstrate that God is present with us, people in the world will begin to visit. The rumor of God's presence is the beginning of missionary work and the prelude of revival. However, as we all know, we are not able to seek for the bread of the Spirit, but God must give it to us. In other words, we are able to receive it from God through worship, prayer, and His word.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지하여야 할 것은 영적 양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적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세상은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The rumor is the beginning of missionary work and the prelude of revival. God is in the midst of us, and when people hear that the church is full of the bread of the Spirit, the church will be recovered, and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look again.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주시는 양식을 세상에 나눠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취임 감사예배

1월 21일(금) 오전 11시 - 서울교회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1월 21일(금) 오전 11시 서울교회에서 거행된다. 1부 감사예배는 손인웅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 덕수교회)의 인도로 진행되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미리암 여성중창단의 특송 순서가 있다.

2부 이·취임식은 이수영 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 부원장, 새문안교회)의 인도로 진행되며 이종성 원장이 이임하고 명예원장으로 추대되며 이종윤 원로목사가 원장으로 취임한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1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 18일(화) / 수여식: 2월 6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1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본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자(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며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은 1월 18일(화)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서류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1 농어촌 100교회 운동 · 비전2020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

현재 전년 대비 35% 접수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비전2020 운동, 문화,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모든 삶을 희생하며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62명의 파송 선교사를 위한 한가

정 한선교사 운동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년 대비 35%정도만 접수된 바 많은 가정 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도한다.

<농어촌 100교회 후원 참여자>

이훈, 1-11다락방, 박찬희, 제2권사회, 박정선, 오혜정, 김복녀, 이준호3(이은희), 이성우, 지성철, 안홍희(전화진), 이상호2, 박지윤, 이강진(이신영), 김상태, 방계운(박현미), 노제현, 장윤기(노애리), 박정자1, 주동재(김동진), 박정수(김경옥), 이영기(이영숙), 에스더여전도회, 최형열, 나미움, 이영조, 송영재(합정회), 김수남(송경옥), 김재중(김유경), 오종원(김연화), 박종권(김희경), 하인선(남태순), 박경정(이인보), 김춘옥, 신용식, 임상현, 이현수, 조희, 노병희(방덕자), 김철진(노의정), 노문환(장정화), 임흥수, 김경애, 제2스데반, 황선옥1, 김준목, 이복규, 임광우(최미희), 노중환, 임종식(신선주1), 김광민(박민숙), 이관규, 김만집(이영자), 정진문, 김선태(김옥순), 김인혜, 박화실(이은지), 오치열, 이인표(최유진), 이동현(이성현), 박노형(강민정), 전수자, 김정곤(김수정), 이명구(문옥일), 해원(장수), 정동학(김복순), 김용환, 소윤경, 윤숙자, 박미경5, 양은정, 최광성, 김장섭(최춘숙), 김정희10, 조순엽

광욱 김대호(남순택) 김만집(이영자) 김복녀 김선태(김옥순) 김수경(김명현) 김수영(전하미) 김영표(권소희) 김용환 김유경 김윤숙 김은대 김인순 김인혜 김장섭(최춘숙) 김재혁 김정곤(김수정) 김준목 김춘옥 김필임 김형상(최금숙) 나미움 노문환(장정화) 노병희(방덕자) 박경정(이인실) 박관준 박미경 박정선 박정자 박종권(김희경) 박종환 박형수 박화실(이은지) 방계운(박현미) 배현승(배현주) 서상근(김예환) 서숙자 송영재(합정회) 송민권(윤숙자) 송재현(선순례) 송행희 신용식 안홍희(전화진) 양은희 오민세(임경희) 오종원(김연화) 오치열 원용범 유경희 유윤상(이현미) 윤숙자 윤석원(원승희) 윤석준 이훈 이강진(이신혜) 이관규 이동만 이동현 이명구(문옥일) 이만희 이복규 이상호 이성현 이승언(윤정일) 이영기(이영숙) 이영조 이예은 이윤미 이종열(이귀숙) 이준호(이은희) 이현수 임경락(김혜중) 임상현 임종식(신선주) 임흥수 장명순 장해라 장해윤 전봉길(임선영) 전수자 전은재 전은주 정기자 정동학(김복순) 정수진 정은재 정지애 조순엽 조정미 조희 주동재(김동진) 주차흠(윤계진) 진준식(진원식) 최광성 최규조 최형열 하인선(남태순) 한승집(최미아) 홍성주(여현진) 황선옥 에스더전도회 제2권사회 제2스데반회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참여자>

김수남(송경옥) 강요셉(강찬양) 강홍래 김가순 김광민 김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 선착순배포

서울교회 20년사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를 한 가정당(가정을 이룬 성도) 1권씩 배포하고 있다. 주일 202호에서 해당 교구 간사를 통하여 교환권을 받아 서적부에서 책을 수령하면 된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29일 이종윤 목사 은퇴식 때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던 고회기념 논문집이 필요하신 성도들은 『코람데오 서울교회 1991-2010』 교환시에 함께 받아갈 수 있다.

1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독>

4교구 손병석 집사 11교구 박인규 장로

<1독>

3교구 김수원 권사 배재송 집사 임분도 권사

12교구 박은주 집사

13교구 김희순1 집사 박미경5 집사 정선희 집사

16교구 최규초 집사

성경통독사경회

2월 2일(수) 오후 1시~오후 5시

3일(목) 오전 8시~오후 5시

- 범위 : 롯기 ~ 욥기 -



구정(설날) 연휴 기간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웨스트민스터 흄에서 2일(수)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리고 구약성경 롯기 1장을 시작으로 3일(목) 오후 5시 욥기 42장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마치게 된다.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우리의 믿음생활이 연약해지기 쉬운 명절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불 붙은 금요 기도회



지난 1월 14일(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금요기도회와 인도하는 박노철 목사

목회자세미나 동문 수련회

1월 17일(월)~18일(화)/아가페타운

목회자세미나 동문 수련회가 1월 17일(월), 18일(화) 양일간 아가페 타운에서 열린다. 이번 수련회에는 목회자세미나 동문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에게 듣는다

들뜰지 아니 들뜰지

이영수장로 (전도위원장)



복음 전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결심이 굳고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년이나 5년 또는 10년 20년을 계속하는 이를 보면서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대명이며 서울교회 전도자는 그 대명 따라 살 뿐 의지나 결심이 굳건하기는커녕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겔 47:3~5)성령께서 대신 전도를 해주시니 기쁨이 나오고 그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적어서 떠난 이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해 동안

성도님이 뿌린 전도지와 “예수 믿으세요.” 권면했던 때가 허공을 친 것 같습니까?님이 심은 수많은 씨앗을 헛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싹이 나서 잎과 꽃을 피운 후에 열매가 되어 님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들뜰지 아니 들뜰지.”(에스겔 2:5,7)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4:2) 이 파악한 시대에 전도자(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님을 권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를 위하여 몇 시간이고 허리가 휘도록 기도하는 도고 팀과 일 년 내내 이슬비처럼 초청의 글을 써서 보내는 문서 전도 팀, 오늘도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님의 발을 보시고 “아름다운 발”(이사야 52:7)이라고 만물에게 선포하시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딤후 4:8)작은 한결음도 계산하시며 상급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불꽃같은 약속이 2011년에도 유효함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겨울 수련회 초대인 글

우리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주역

이동만 집사 (중등부 부장)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시작한 2011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새롭게 더 힘차며 새롭게’라는 단어가 가슴에 새겨지는 해입니다. 이러한 다짐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의 목표점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저희 서울교회 중등부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월 24 일(월) ~ 1월 26 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1년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지난 해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섬김의 리더쉽으로 무장한 우리 중등부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인 여러분은 특히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박노



최양진 집사 (고등부 부장)

“교회의 미래-다음 세대 고등부”이라는 주제로 2011년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가집니다.

과중한 학업과 입시에 둘러있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번 겨울수련회는 일생을 좌우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찬양하고 기도하에 힘쓰는 신앙 훈련입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철 목사님, 박종민 목사님의 말씀과 이갑진 장로님의 특강으로 더 큰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는 찬양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가고자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맑은 눈동자가 품은 미래 -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끝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뜨거운 축복이 세상에 넘치는 - 그 미래를 수련회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중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련회 참여에 한결같은 신앙의 앞모습과 뒷모습으로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들을 길러 오신 귀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격려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펼친 날개로 그 꿈을,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동만 집사 (중등부 부장)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세상문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처음 맞이하는 박노철 목사님의 설교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고등부를 향하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학생들의 삶에 지표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녁집회는 노현상 지도목사님 인도로 학생들의 갈급한 심령을 은혜로 듬뿍 적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의 미래이고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쉽없이 기도하며 준비한 고등부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기간에 학원과 휴가일정을 미루시어 고등부 자녀들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열렬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유수진 성도 (청년부)



살롱!! 매우 추웠던 서울에 있다가 따뜻하고 맑은 하늘을 보니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으로 오묘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푸른 하늘과 나무들을 보니 서울교회 1회 단기선교지인 태국을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자연을 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제겐 매우 깊게 자리잡혔던 것 같습니다. 태국 단기선교는 선교에 대해 무지했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전쟁을 경험하며 제 신앙 생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단기선교에 지원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그 후, 방글라데시와 몽골로 단기선교를 몇 차례 더 경험한 후, 선교의 중요성을 직접 보며 배울 수 있었고, 언젠가는 6개월 이상 단기선교를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유학생할 시절에 유학생 수련회인 KOSTA를 통해 선교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음악선교사를 필요로 한다는 메일을 받았 습니다. 아프리카는 제가 평소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라서 더더욱 꼭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흥해작전이 시작되던 즈음이라, 흥해작전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곳 AMI school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반주법과 시창, 재즈하모니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 대상으로는 피아노와 뮤지컬 공연연습을 맡게 되었습니다. 음악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적,음악적 리더로 세우는 것이 AMI의 비전입니다. 지난 주일 파송기도와 성도들의 큰 축복을 받으며, 서울교회에 다시 한 번 큰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르게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